주일예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 오전(2부) 7시30분 / 오전(3부) 10시 / 오후(4부) 3시 / 수요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주일예배 오전(1부) 7시30분 / 오전(2부) 10시 / 오후(3부) 3시 / 저녁예배 7시 / 금요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1월 27일 (제98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붕우컬럼

옷이 나다

나는 이번 목회자 세미나 때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정장을 착용하라고 했다. 번거로운 줄 알면서도 정장을 고집한 이유는 목회자들은 사병이 아닌 장교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옷'이란 글자를 자세히 보면 이것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했다. 'ㅇ'는 머리요, 'ㅗ'는 목과 팔을, 그리고 'ㅅ'은 몸과 다리 느낌이다. 이는 옷이 곧 그 사람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목회 34년 동안 나는 참 많은 사람을 만났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업,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얻은 결론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차림이 곧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옷은 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면이 외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의상이고 헤어스타일이다. 또한 옷에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묻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차림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한다.

나폴레옹은 '사람은 입은 대로 사람이 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이상하게 예비군복만 입으면 안 그러던 사람도 아무데나 실례하고, 아무데나 걸터앉고,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는 방종을 서슴지 않는 이유가 그것이다. 내가 무려 30년 가까이 흰 양복을 고수한 것이 같은 맥락이다. 거짓 없이 깨끗하게 살겠다는 의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젊은 아이들이 사다주는 옷을 자주 입는다. 그건 내가 젊어지겠다는 내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자신의 값은 자신이 매기게 된다. 내 가치는 내가 높이는 것이다. 천하게 옷을 입으면 천하게 행동하게 되고, 결국 천한 대접을 받게 된다. 비싼 명품 옷을 입으라는 것이 아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게, 경우에 맞게 옷을 입으라는 것이다.

옷은 제2의 피부다. 그러니 옷차림에 신경을 써라. 그것이 당신이니까.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진행되었던 2019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은 로마제국의 멸망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질문하셨다.

"지구의 반을 통치하던 천년제국 로마가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천년의 영화를 뒤로 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원인이 무엇이지 아는가? 외부의 침략으로 무너진 것인가, 아니면 내부로부터 스스로 붕괴한 것인가? 즉 타살이냐, 자살이냐?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리고 목사님은 이어서 찬란했던 유럽 교회가 오늘날 관광지로 몰락해버린 원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질문하셨다.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중세유럽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종교개혁의 봉홧불을 들었던 유럽 교회가 오늘날 교인들은 모두 사라지고 화려한 건물만 남아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린 원인이 무엇인가?"

자살이냐, 타살이냐? 아주 날 것 같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질문이지만 "못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던 질문처럼 우리 가슴에 깊은 울림을 던진 질문이었다. 사실 질문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목사님은 항상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외부의 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내부의 분열, 곧 자중지란(自中之亂)이 무서운 것이라 늘 말씀하셨다.

천년제국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며 유럽 및 서아시아를 장악한 역사는 사실 100여 년에 불과하다, 나머지 장구한 세월 동안 로마는 아주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외부의 적, 곧 게르만과 투르크 족의 공격으로부터 서로마와 동로마가 멸망한 것이지만, 패배를 몰랐던, 항상 승리만을 구가했던 로마가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너진 것은 로마 스스로 안주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결과다. 곧 자살인 것이다. 이것이 목사님의 진단이었다.

"유럽 교회의 몰락 역시 자살이었다. 한국 교회 또한 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몸살을 앓으며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누구를 탓할 것인가? 세상의 빛이요 산 위의 동네가 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버린 채, 세상 풍조에 타협하고, 성도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안일함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미석으로 지은 화려한 건물만 덩그러니 남게 만드는 것이다. 유럽 교회를 가보라. 그 아름다움으로는 비길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예배도 없고, 성도도 없고, 관광객들만 보일 것이다. 심지어는 술집으로, 모슬렘의 성전으로 바뀐 곳도 허다하다. 예수님이 떠난 교회의 실상이다. 나는 올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자'고 선포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의 눈 같은 장로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는 것이다.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말라. 주눅 들지 말라. 개는 본시 개소리 하는 것이다.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출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임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커튼을 열어젖혀라.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또한 지난 30년의 영광에 취해있다가는 동일한 전철을 밟으며 무너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처럼 뒤엣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앞의 푯대만 바라보고, 그 날의 상을 바라보고, 그 날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자!"

'못하는 것이냐, 안하는 것이냐?', '자살이냐, 타살이냐?'

2019년 새해,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도하고 말씀 보며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 편에 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마5:14~15). 아멘!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12:1~3)

성공은 지능보다 집중력과 끈기에 있다

성공은 지능보다는 집중력과 끈기에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따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가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희생 없는 열매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사 쉽게 이뤄지는 것이 없고, 금방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라면을 끓이려고 해도 기다려야 할진대 성공이 그리 쉽게 온답디까? 귀한 것일수록, 좋은 것일수록 쟁취하려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묵묵히 참는 인내, 핍박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성공의 절대적 요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1~2). 믿음의 전당에 오른 허다한 선친들도 오래 참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인내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야곱이 20년 세월을 기다려 거부가 되었으며, 요셉이 13년 세월을 참아 애굽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비가 올 때까지, 가랑이 사이로 머리가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었고(왕상18:19~46), 엘리야를 좇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가라, 가라'는 말에도 참고 인내하며 엘리야를 끝까지 좇더니 그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었습니다(왕하2:1~14).

대를 이을 자식은 곱게 기르지 않는다

눈뜨기를 소원했던 소경 바디매오는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지 귀를 막고 포기하지 않더니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광명을 찾았고(막10:46~52),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자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재판관을 찾아간 과부도 수치와 고난 중에도 인내하여 마침내 소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했지만(막7:27)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여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두 성공을 이루고 소원하던 바를 얻은 것은 인내와 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1:6~8). 왜 하나님이 뱃사람인 베드로를 사용하셨을까요? 왜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의 끈기를 보신 것입니다. 고기가 잡힐 때까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는 베드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겠다고 다메섹까지 달려가는 끈기를 보시고 '쓸만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성경의 인물뿐이겠습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2천 번 실패했지만 끝까지 연구하여 마침내 그것을 발명해냈고, 링컨도 많은 실패를 인내하여 마침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숱한 모함과 핍박, 고난 중에도 인내하였더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니 하나님이 마침내 2천 년을 기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히3:14). 무엇에든 시작할 때의 마음을 끝까지 잡으면 성공도 이룰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천국에도 이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절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가을에 거둘 수확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면 기다리지 못할 것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사나운 비바람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시126:5~6).

'기필코 정신'이 인내하게 합니다. '박사학위를 따고야 말리라'는 절실함이 인내하게 되고,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겠다'는 절실함이 고통을 인내하게 하고, '응답 받고 말겠다'는 절실함이 낙타무릎이 되도록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곧 인류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기에 고난 앞에서 인내하셨고, 부끄러움도 참아내신 것 아닙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환경을 힘들게 만들어 우리가 목표한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기필코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절실함으로 인내하고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지만, 영적 성공을 위해서도 인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약5:7~11). 야고보 사도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음', '인내'라는 말로 우리의 신앙에도 오래참고 견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농부처럼 참으라고 하십니다. 농부는 가을에 수확할 것을 바라다보고 참습니다. 즉 목표를 바라다보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지자들처럼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명에 부도내지 않기 위하여 숱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기필코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욥처럼 참으라고 하십니다. 욥이 당한 고난과 고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그래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의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그랬듯이 갑절의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영·혼·육의 성공,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터널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약1:2~4).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실 때도 40년이란 세월을 인내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달콤한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해야 얻는 것이랍니다. 4,200번 꽃에서 꿀통, 꿀통에서 꽃으로 꿀벌이 왔다 갔다 해서 꿀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물며 멋진 인생, 아름다운 미래, 달콤한 삶이 그냥 이뤄지겠습니까? 모진 바람이 분다고,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옆에서 비아냥거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귀는 막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반드시 일을 이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지 못하고 엎어버린 겁니다.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하는데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 7부쯤에서 '이게 되겠어? 하며 물을 엎어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리고를 일곱 바퀴 돌아야하는데 여섯 바퀴에도 아무런 징조가 안 보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해서 안 되는 겁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 정신으로 밀고 나가면 절대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10:36~39). 할렐루야!

:: 신년사 ::

더욱 최선을 다하는 한 해

한 해 동안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과 미라클 특공대를 결성하여 전국의 지교회에 다니며 성전을 수리하였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에 성전 수리와 인테리어를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날 받을 성전 건축의 상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뛰었다. 일할 때 그 기쁨은 주님과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일하기 좋아하는 자 그 누가 있을까만, 나는 그날의 상을 보고 달려가고 있다. 세상일을 하든, 목회를 하든 그날의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그날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내 나이 67세, 2년 전부터 노령 연금을 받는 노인네가 되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날개를 달고 지금 내 앞에 와 있으니 어쩌면 좋은가? 그래서 더욱 내게 주어진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겠다고 다짐한다.

새해에는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한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든지 할 것이다. 편하고 좋은 일만 가려서 할 수 없다. 오직 사용해주심에 감사할 따름이다. 총회장 목사님의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본받아서 총회장 목사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먼 길도 무릅쓰고 달려와서 새벽까지 일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특공대 목사님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혼자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한다.

'주님 ! 이 시간, 이 날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이 얼마나 힘들고 몸이 피곤할까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한 그 젊음의 축복을 주옵소서"(시92 :14). '다윗도 건축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의 이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 주님! 섬기는 교회에 놀라운 주님의 복을 내려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기도드린다.

흘러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잡을 수 없다. 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고,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신 총회장 목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아산예수중심교회 박인덕 목사

:: From Internet ::

작은 친절이 만든 큰 이야기

냉동식품 가공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직원은 여느 날처럼 퇴근하기 전 늘 하던 대로 냉동 창고에 들어가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하고 문이 저절로 닫혀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그녀는 목이 터지도록 소리치며 도움을 청했지만, 문밖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다들 퇴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내가 여기에서 얼어 죽는 건가?' 생각하며 절망감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여직원의 몸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냉동 창고 문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몸을 일으켜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경비원 아저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조되고 난 후, 그녀는 경비원 아저씨에게 어떻게 자기가 거기에 있는 줄 알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냉동 창고 문을 연 건 정말 뜻밖의 일이었으니까요.

경비원 아저씨는 자기가 공장에 온 지 35년이 됐지만, 그 여직원 말고는 누구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또 퇴근해서 집에 돌아갈 때는 "수고하세요!"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날 분명히 아침에 출근한 그녀가 퇴근 시간이 됐는데도 보이지 않자, 경비원 아저씨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공장 안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냉동 창고까지 확인해 봤던 것입니다.

사소한 친절, 그것이 그녀의 생명을 건진 것입니다.

우리, 친절에 인색하지 맙시다.

:: 성경에세이 ::

큰 생각, 열린 마음

여보게!

목회 전에 나는 이천에 자주 갔었네. 도자기를 빚기 위해서였지.

도자기를 빚을 때 처음 해야 할 일은 빚을 흙을 떼어서 물레에 돌리는 거라네. 그런데 말일세. 처음에 흙을 너무 적게 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네. 조금 넉넉히 떼면 물레를 돌리면서 떼어낼 수 있지만 적게 시작하면 조금 크게 만들려고 하면 흙이 찢어지고 말거든. 그래서 초보들은 가능한 한 넉넉히 흙을 돌리면서 떼어내는 방식을 취하지. 흙이 많아야 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여보게!

생각도 그렇다네. 생각이 커야 결과도 크게 나온다는 거지. 호랑이를 그리려고 마음을 먹어야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다는 옛말이 있지 않나?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한 사람은 호랑이는 절대 그릴 수 없다네.

나는 사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네. 2억짜리 사업을 하려고 은행대출을 받으려면 3억쯤 받으라고. 넉넉히 받아놔야 여유가 있거든. 딱 2억 대출받았는데 더 들어가면 힘든 상황이 오지 않겠나. 마음도 생각도 그런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오 리를 가자면 십 리를 가는 마음으로,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는 심정이 되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댈 줄 알라고 하신 거라네. 생각을 크게 하고, 마음을 크게 하라는 거지. 다윗이 그의 왕위를 계승하는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에든 '담대하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을 크게 하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네. 대장부란 자고로 스케일이 커야 하거든.

생각이 커야 큰일을 이루고, 마음이 커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거라네. 요즘 젊은이들은 사회와 시대가 문제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생각과 마음이 좁아진 그들이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네. 너무 안정적인 틀만 생각하니까 미래가 없는 것 아닐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후6:11~13).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게. 편협한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버리고 크게 생각하게.

朋友

:: 연단을 넘어 ::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큰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다. 그런데 그 직후 갑작스레 상황이 반전된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과 그 물건들을 모조리 엎어버리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토록 분노하셨을까? 그들이 멋대로 장사한 성전이 바로 '내 집'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은 성전이다. 곧 내 집, 주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집이다. 왜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내 생명이 주님 것이기 때문이다. 왜 살인하면 안 되는가? 모든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다. 왜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는가? 느린 자살이기 때문이다. 내 맘대로 쾌락을 위하여 해하는 것, 청지기가 그를 믿고 맡겨준 주인의 뜻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이자 죄의 본질이다. 결국 죄의 현장은 언제나 누가 주인인지에 관심이 없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주인 것을 제 멋대로 강탈하는 영적 강도들의 굴혈(마21:13)이 된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며 모든 것이 가하나 음란과 죄악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선포한다(고전6). 또한 우리에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명한다.

몸의 위치가 그 삶의 위치다. 그래서 세상 왕궁보다 성전 문지기가 낫다. 왜 귀신이 질병을 일으키는가?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왜 주님은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가? 주님의 성전을 정화하여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몸을 대하는 태도가 영성이며 몸을 다루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된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다. 성전을 청소해야 한다. 몸을 해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는 술, 담배뿐만이 아니다. 몸이 거하는 장소를 돌아보자. 요셉처럼 죄의 자리를 당장에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자. 기도와 찬양, 예배와 사랑과 섬김의 자리가 청지기의 마땅한 자리이다. 주인은 곧 오신다. 그 날, 우리 평생에 맡겨졌던 모든 것을 계수하실 때 칭찬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모두가 되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12:1).

이은총 전도사
unjena7@hanmail.net

:: 에덴으로의 귀환 ::

귀신 쫓는 능력 있는 교회

어느 날 문득 20년 전 우리 교회를 처음 출석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금요철야예배에 처음 참석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 시절 총회장 목사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은 눈부시게 하얀 정장을 입으셨고, 머리엔 깨끗하게 기름을 바르시고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수많은 교회를 출석하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목사님의 빠른 설교 속도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예배 시간 내내 제 귀에 들렸던 단 하나의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완전히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스무 살을 갓 넘긴 때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일상이 되었고, 전 세계를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수없이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벙어리 된 어린 아이가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할 때, 10여년 이상 누워 있던 앉은뱅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평생 산소통에 의지하며 살아온 여인이 산소 호흡기를 믿음으로 벗어 던질 때, 정말 그 때의 감동은 말로 형언할 수도 없었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온 몸엔 소름이 돋았고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내가 아닌 남에게 일어난 기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 보는 것만으로는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최근 기억을 더듬어보니 제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 정말 많았음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처음으로 어머니와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을 찾아갔을 때, 쉬고 있던 숙소에 이시대 목사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로 엄청 고생을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제 얼굴에 난 태열을 고치시려고 전국에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항상 눈이나 입 주변에 수포가 생기고 여름에는 접히는 부위마다 진물이 나고, 겨울에는 건선으로 손끝과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이시대 목사님께서 안수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그 이후로 제가 아토피로 고통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에 놀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 가을,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A형 간염으로 크게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3일 내내 음식은 물론 물도 먹지 못해 그 짧은 기간 동안 몸무게가 8kg이나 빠지게 되었습니다. 밤에도 계속 환청이 들려 잠도 이루지 못하고, 간수치가 일반적인 수치에 비해 거의 100배에 육박할 정도로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치가 너무 높아서 한 달 이상은 입원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고, 계속 내려가지 않으면 진짜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회장 목사님께서 병원에 찾아오셔서 제 배에 가만히 손을 얹으시고는 귀신을 쫓으셨고, "다 나았다!" 한 마디를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신 직후 아주 시커먼 대변이 나왔고, 갑자기 식욕이 돌아 갈비탕도 먹고, 물도 마음껏 마신 후 말끔하게 나아서 입원한지 나흘 만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건강검진 결과에 자궁경부암 전 단계인 자궁경부 세포이형성증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총회장 목사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깨끗함을 받았고, 2012년에 발병한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사 선생님이 평생 호르몬 약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목사님만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가르치셨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쫓아냈더니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일으키는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게 하셨고, 병 고침도 받게 하셨고, 기억해내지 못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귀신을 쫓는 능력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고, 이러한 위대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한없는 감사를 느낍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길, 육체의 병을 일으키는 것도 귀신이요,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것도 귀신이요, 가족에, 기업에, 국가에 문제를 일으키고 방해하는 것도 귀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귀신이 한 것이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참담할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인정해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내 안의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보세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김은유 집사

:: 울림 있는 삶 ::

새벽예배자

알코올중독자인 남편과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이보다 더한 악행으로 응대하던 나는 양심의 소리에 창자가 끊어질듯 애통하며 회개했고, 회개 후 수년 동안 괴롭히던 심장병에서 고침 받았다.

그 후 새 삶을 선물받은 나는 새벽, 희미한 녹색 비상문 등불 아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출근시간은 한 시간 이상 빨라졌고 귀에는 목사님 설교로 이어폰이 항상 끼어져있었다. 이렇게 나의 새벽사랑은 수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러나 사업자가 된 후 쉴 새 없이 다가오는 풍랑과 파도에 맞서는 비숙련 사공인 나는 지쳐 7년여 지속하던 교회차량봉사도 놓게 되었고, 어느덧 부끄러운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있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아득한 삶속에서 지쳐있을 때 딸아이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안겨주었다.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그동안 빼먹은 예배를 모조리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수없이 반복해서 듣는 예배는 전혀 색다른 충만으로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며 죽어가던 심령을 되살려놓았다. 특히 이시대 목사님의 JC세미나를 통해 신학생 부럽지 않게 지식도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 새벽 5시 이전에 기상한 후 나의 사업터는 목사님 설교로 고요한 새벽을 깨우며 최고의 하루를 시작한다. 그것이 내 삶의 힘이다.

육체는 휴식을 통해 활력과 원기 왕성함을 찾듯 사자후를 토하시는 말씀이 골수를 쪼개고 심장까지 파고들어 하루를 무사히 인생강자가 되게 함을 체험해보시라 감히 권면해봅니다. 별보고 출근, 별보고 퇴근한 부지런함의 대명사, 야곱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게으름과 무기력을 청산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해보길 바래봅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도 모두 새벽사람이었고,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음을 기억합시다.

새벽예배자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심을 알고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십시오.

추성숙 집사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감기를 잘 관리하는 방법

이번 겨울도 어김없이 강한 독감이 12월에 지나감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환경에 영향을 쉽게 받는지를 알게 됩니다. 한의학에서 감기로 인한 후유증은 몸에 남아서 또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감기에 걸렸을 때 미리미리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한의사로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감기를 어떻게 예방하고 감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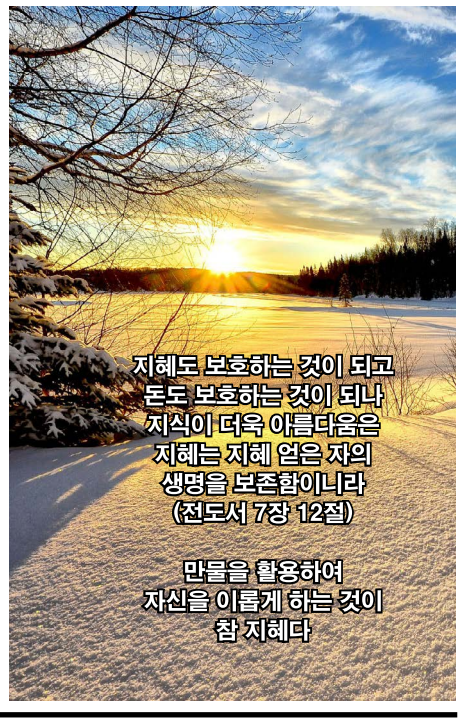
누구나 감기가 올 때 주로 오는 패턴이 있는데, 어느 분은 몸살감기로 시작을 하고, 다른 분은 목감기로 오고, 또 다른 분은 기침감기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희한하게도 주로 자신에게 오는 감기 패턴이 있으며, 그 패턴이 오기 전에 전조증세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 특성상 과로를 많이 하는 편인데, 조금 심해지면 춥고 두통이나 몸이 쑤시는, 몸살감기라는 사인이 옵니다. 그러면 일단 몸을 쉬고 땀을 흘립니다. 추울 때 사우나에서 가볍게 땀을 흘리면 감기의 차가운 기운(한기라고도 합니다)이 조금 줄어듭니다. 추가적으로 약국에서 갈근탕을 1봉 복용합니다. 그러면 초기 몸살감기에는 제격입니다. 약국에서도 몸살감기약을 달라고 하면 갈근탕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원에서 주기도 합니다.

목감기로 오시는 경우에는 초기에 병원에서 진료 후 처방받은 양약과 은교산이라는 한방감기약을 약국에서 파는데, 같이 복용하시면 효과가 빠릅니다. 아이들 열감기에 해열제로 열이 잘 안 떨어질 때 형방패독산이라는 감기약을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양약과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더 빠릅니다. 특히 아이들, 혹은 소화력이 조금 약하거나 평균정도의 소화력을 가지신분들의 초기 열감기에 효과가 좋습니다.

마른기침이 오래갈 때는 약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경옥고라는 보약을 복용하면 오래된 마른기침에 효과가 좋고, 기침감기에는 은행이 도움이 되며, 특별히 누런 가래가 많은 기침에는 도라지차를 복용하면 좋습니다.

감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감기를 예방하는 오과차를 평소에 자주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과차는 모과 30g, 대추 15개, 밤 15개, 은행 15개, 호두 10개를 깨끗이 씻어서 냄비에 물을 가득 넣고 반으로 줄 때까지 푹 달인 후 꿀 1컵을 타서 마시면 됩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과로를 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역이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신체의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신체의 소리를 잘 듣고 미리미리 관리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16:26).

Dr. 설재현 집사